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7/13~2026/07/19]

2026.07.20

[로봇] 선데이로보틱스의 ACT-2

- 현대차의 보스톤다이나믹스 100% 인수와 삼성전자의 로봇 역량 결집 움직임
- 홀리데이로보틱스가 1,550억원 규모 시리즈 A를 유치. 한국 로봇 스타트업도 대규모 자금 조달 성공
- 선데이로보틱스가 ACT-2를 공개. 로봇 개발의 초점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복 수행하냐"로 이동

[방산] 6월 방산 수출 데이터

- 페루 전자장갑차, 필리핀 K-9, 태국 KF-21 수주 기대감. 스페인 자주포는 변속기 관련 양호
- 유럽 방산 실적 시즌 개막. 콩스버그와 사브 모두 호실적에 수주잔고 대폭 증가
- 미국과 이란 충돌 재점화 속 중동 요격 미사일 부족 심화 가능성 제기

[조선] 미국 군함 사업 본격화

- 트럼프가 다시 불 붙이는 미국 군함 한국 건조. 필리조선소는 미사일 계측선 수주
- 캐나다 잠수함 이후, 페루 잠수함, 태국 호위함, 필리핀 호위함 기대감 확대
- 이란 항구 공격에 투입되었던 미국 사로닉이 텍사스에 신규 조선소 착공. 해상도 무인체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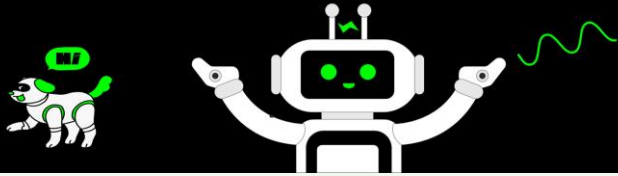
[항공] 대한항공 서프라이즈

-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5단계 인하, 美 동부 왕복 17만원 하락
- 대한항공 내년 초 LCC 3사 통합 검토,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 호르무즈 다시 흔들리자, 대한항공 버티고 LCC는 한숨

[해운] 수에즈 통항 증가

- 울들어 수에즈운하 통과 선박 지속적으로 증가. 머스크 수에즈운하 복귀 본격화
-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아조프해 마비, 러 수출 차질 우려
- 상반기 글로벌 곡물 운송 전년동기대비 +13% 증가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선데이로보틱스의 ACT-2

선데이로보틱스가 새로운 로봇 AI 모델 ACT-2를 공개. 사전 학습 규모 확장을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 그리고 모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복 수행 가능한지 평가해야한다는 새로운 관점도 제시.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34)

[선데이로보틱스의 ACT-2]

- Sunday Robotics가 가정용 로봇 Memo의 신규 모델 ACT-2를 공개. ACT-2의 가장 큰 성과는 사전 학습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일반화 격차'를 해소했다는 점. Sunday는 다양한 센서 기반 인간 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베이스 모델을 학습했고, 이후 소량의 사내 데이터만으로도 성능 개선이 미지의 환경으로 일반화된다고 설명.
- ACT-2는 9개 의류 유형, 785회 자율 시도에서 99.1%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발표. 완성된 778개 접기 결과의 평균 품질 점수는 4.72/5점, 4~5점 비중은 98.3%로 제시. 작업 속도는 성공 케이스 기준 중앙값 2분 13초. 동사는 빨래 접기를 시작으로 진공청소기 사용, 장난감 정리, 지퍼 채우기 등 더 넓은 범위의 가사 능력을 학습 중. 2026년 가을부터 베타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가정에 배치될 예정
- 로봇 개발 경쟁의 초점이 "무엇을 할 수 있나"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복 수행하나"로 이동하고 있음. Sunday는 이를 Solve라는 기준으로 정의했으며, 성능·적용 범위·추가 적응 비용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

Key Chart: 선데이로보틱스의 다양한 가사 작업 학습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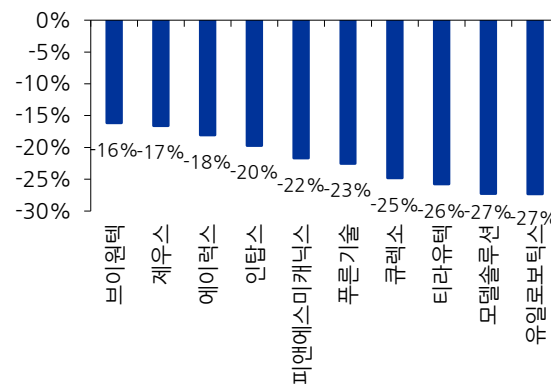


자료: Sunday Robotics,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7/13~07/19)

[전통 로봇]

- 씨메스, 25억 규모 로봇 자동화 설비 공급계약

[휴머노이드]

- 홀리데이로보틱스, 1,550억 시리즈 A 투자 유치

[부품/SW/기타]

- 산업장관 "반도체, AI로봇 전쟁 기업 홀로 감당 못해"
- 범부처 로봇 수요 발굴단 운영. 연구용 로봇 적극 구매
-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100% 확보
- 정의선, 사재 1,200억원 추가 투입에 BD 지분 매입
- 삼성전자, 로봇 역량 '하나'로. 로봇사업부 출범 준비
- 삼성전자, AX-로봇 대규모 인력 충원
- 한국피아이에, 400억 설비 베팅. 로봇·수소 승부
- 모베드' 상용화 초읽기. 8월말 공급 5,000만원 거론
- 브릴스, 코스닥 상장 증권신고서 제출

[글로벌]

- 中 휴머노이드 '림엑스', 몸값 3.3조원에 IPO 초읽기
- 中 협동로봇 '두봇', 오는 22일 선전거래소 상장 심사
- 中 로봇 촉각 기술 기업 '센스', 220억원 투자 유치
- 샤오핑, 매달 1,000대 이상의 로봇을 생산 목표
- 보스턴다이나믹스 CEO "로봇, 궁극적으로 가정에 보급"
- 보스턴 다이나믹스 CEO "대규모 상업화 준비 중"
- Sunday Robotics에서 로봇 모델 'ACT-2 Preview'를 공개
- 美 월드로보틱스, 범용 피지컬 AI 기술로 4,500억원 유치
- 손정의 "2040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 6경원"
- 야스카와, 생산차질로 인한 1Q 실적 부진에 하한가



Weekly Keyword

6월 방산 수출 데이터

6월 방산 수출액이 7.99억달러를 기록하며 급증. 폴란드 EC-2 물량 납품이 본격화된 영향. 탄과 항공기 수출도 더해짐. 하반기에도 폴란드 향 납품 이어지며 수출 흐름 지속 개선될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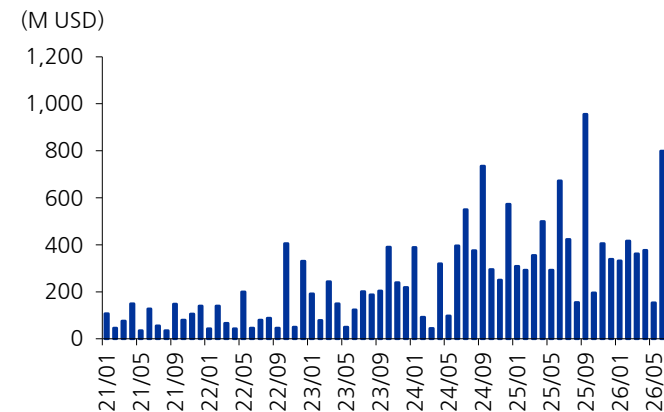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82)

[6월 방산 수출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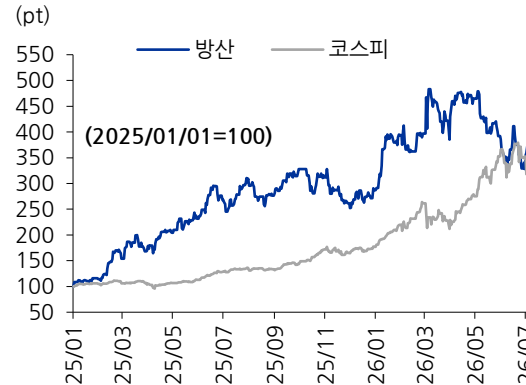
- 6월 방산 수출은 7.99억달러(+19%yoy, +412%mom)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급증. 언론보도 상 폴란드향 K-2 전차 28대, K-9 자주포 2대 출하가 추정되며, EC-2 물량 출하가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됨.
- 5월까지 누계 수출은 전년 대비 부진했으나, 6월 폴란드 물량 재개로 수출 반등이 확인. 하반기에도 폴란드 향 전차·자주포 납품이 이어지며 견조한 수출 흐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탄 부문은 폴란드, 사우디, 루마니아 등에서 견조한 수출 흐름을 유지. 다만 5월 확인됐던 UAE 출하는 6월에는 공백을 기록. 항공기는 인도네시아향 T-50i 2대 출하가 반영되며, 인도네시아 6대 납품이 모두 종료되었음.

Key Chart: 방산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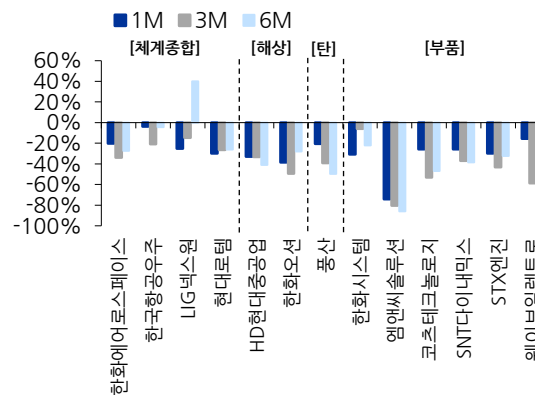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07/13~07/19)

[수주/계약]

- 필리핀, 한화에어로 K9 자주포 도입 검토
- 태국 공군, KAI 'KF-21' 도입 만지작
- 스페인 K-9, 'SAPA 변속기' 강요에 속앓이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자 선정
- LIG D&A, KF-21 장거리 유도무기 개발 총력
- CIA 한국담당 출신, LIG디펜스 미국법인행
- KAI, 인니에 T-50i 고등훈련기 6대 최종 납품 완료
- K2 전차, 국내 첫 NATO 품질인증
- 니어스랩, 창사 첫 분기 흑자. 상반기 매출 174억원

[기타]

- 민항기 공동개발 위한 100개 기업 '팀코리아' 구축
- 전력화 앞둔 KF-21, 29일 체계개발 종료 선언
- 메르츠 獨총리, 10월 말 첫 방문 후 한국행

[글로벌]

- 트럼프 "호르무즈서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
- 미국, 9월 30일 이라크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 계획
- 미 공군, 안두릴 YFQ-44A CCA 실사격 시험 성공
- 안두릴, 27년 바라쿠다 미사일 7,000발 생산 계획
- 독일과 프랑스, MGCS 전차 공동 개발 포기할 수도
- 콩스버그 수주잔고 사상 최고치 1,580억 NOK 기록
- 사브 수주잔고 전년비 62% 증가
- 유럽·우크라, 러 미사일 방어 연합 구성
- UAE, 러시아 S-400 도입 관측 천궁에 혼용 가능성



Weekly Keyword

미국 군함 사업 본격화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군함 건조 언급과 필리조선소의 MRV 수주가 캐나다 잠수함 실주로 실망감이 반영된 국내 조선 업종의 부진한 주가에 반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관심.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2)

[미국 군함 사업 본격화]

- 한화 필리조선소가 미 미사일방어청(MDA)의 미사일 계측선(MRM) 건조 사업에 선정. 한화 필리조선소가 선박 건조를 담당하고, TOTE Services가 선박건조관리자(VCM)를 맡는 구조. 계약 규모는 2척 건조에 약 20억달러, 원화 약 3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도.
- MRM은 미사일 비행시험 과정에서 궤적 추적, 원격조정, 통신, 시험결과 분석을 수행하는 특수선. 트럼프 행정부의 본토 미사일방어 구상인 Golden Dome과 연결되는 핵심 지원전력이라는 점에서, 필리조선소가 단순 상선 건조를 넘어 미국 안보 프로젝트에 편입됐다는 의미.
- 트럼프 대통령도 펜실베이니아 육군전쟁대 국방혁신서밋에서 해군력 증강과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 "한국 등에서 오는 기업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 내 CAPA·인력·납기 병목을 보완하기 위한 동맹국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재차 시사. 전투함 직접 해외 건조에는 법·의회 제약이 크지만, 미국 조선 CAPA 부족이 구조적 문제인 만큼 한국 조선사의 미 해군 공급망 편입 가능성은 계속 확대될 전망.

Key Chart: 필리조선소가 수주한 MR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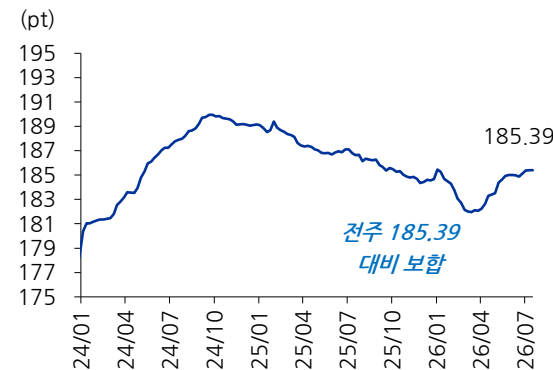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7/13~07/19)

[상선/해양]

- HD현대삼호 \$120.9m VLAC 3척 수주
- 한화오션 \$131.0m VLCC 2척 수주
- Delfin 2호선 연내 FID 목표. 삼성중 수주 기대
- HD현대마린엔진, 中 조선 선박엔진 옵션 계약 실행

[특수선]

- 필리조선소, 3조 규모 미 미사일 계측선 건조 계약
- 한화오션, 모로코에 '장보고'계 제인
- 한화오션, 태국 호위함 낙점. 정치 공방에 발표 지연
- HD현대, 페루에 차세대 잠수함 설계 세부계획 제시
- HD현대중공업, 페루서 'HDS-MGP' 확정
- HD현대중, 필리핀 호위함 후속 정조준. '14척+α'
- 다이먼 "필라델피아 해군조선 부활 위해 357억지원"

[기타]

- 트럼프, 조선 협력 강조. "한국 기업 살펴볼 것"
- 울산조선소 외국인 노동자 노조 가입
- HD현대중, 中 닝보와 카사블랑카 조선소 쟁탈전
- HD현대, 미 키윗과 선박 공동건조 추진
- 타밀나두 이어 안드라프라데시도 HD한조양 유치전

[글로벌]

- JPMorgan, 필리 조선소 잠수함 공장에 \$24M 투자
- 사로닉, 올해 텍사스에 신규 조선소 건설 착공 예정
- 미국, 해상 드론으로 이란 항구 공격해 첫 실전 투입
- 印 "TKMS 설계 원천 데이터 접근권 확대하라" 압박
- 올해 VLCC 신조 발주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Weekly Keyword

대한항공 서프라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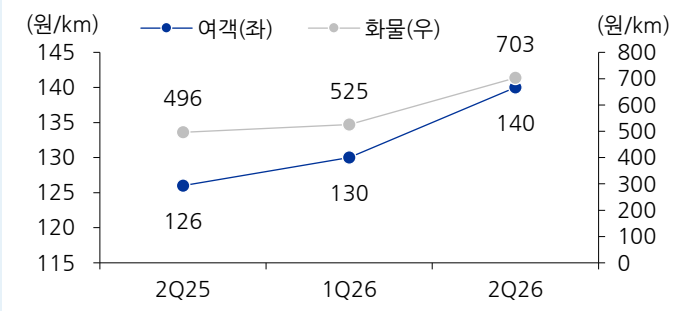
대한항공 2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2,618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 고유가 영향으로 수익성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으나, 유류 할증료 인하 및 성수기 수요에 힘입어 3분기 실적 개선 기대.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2) [대한항공 서프라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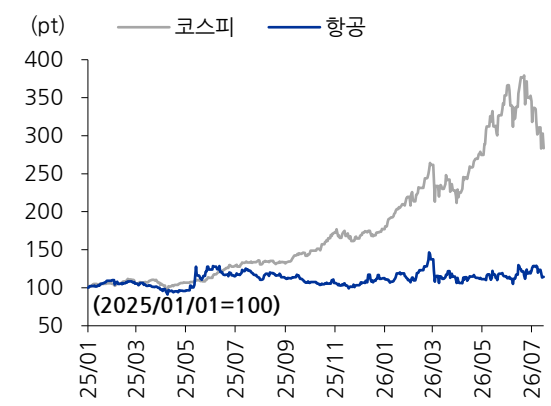
- 2Q26 대한항공 별도 기준 매출액 5조 199억원(+26%yoy), 영업이익 2,618억원(-34%yoy)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여객(+19%yoy)과 화물(+46%yoy) 모두 매출 성장을 견인했으나,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가 약 2조원(+111%yoy)으로 증가하며 수익성은 하락.
- Yield는 여객 140원/km(+11%yoy), 화물 703원/km(+42%yoy) 기록.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9단계에서 14단계로 하락함에 따라, Yield 내 유류할증료 효과 감소는 불가피. 다만, 인바운드·환승 여객과 사·반 도체 화물 수요는 연말까지 견조할 것으로 판단.
- 항공유 가격이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비용에 반영되는 만큼, 3분기는 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기대. 하계 성수기와 한국발 수요 회복 기대를 감안하면 3분기 여객 수요는 강세를 지속할 전망.

Key Chart: 대한항공 여객, 화물 Yield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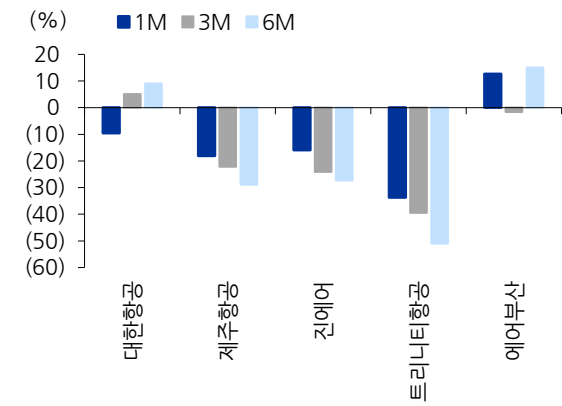


자료: 대한항공,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7/13~07/19)

[여객/화물]

-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14단계 적용, 7월 대비 5단계 하락
- 대한항공부터 LCC까지 화물운송 확대, 항공업계 새 트렌드
- 호르무즈 다시 흔들리자, 대한항공 버티고 LCC는 한숨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계열사 정리 윤곽, 아시아나티앤아이 청산 추진
- 대한항공, 드론·UAM 박람회서 사·무인기 기술 공개
- '반도체 특수' 올라탄 대한항공, 화물 요금 40% 이상 급등
- LCC 3사(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내년 1분기 통합 검토
- 제주항공 상반기 매출 100만 여객 운송, 국적 LCC 유일
- 티웨이항공 벤쿠버 노선 안착, 1년간 8만 2,000명 탑승
- 티웨이항공, 상반기 화물 운송량 1만 8,000톤(+37%yoy)
- 매출 90% 국제선 나온 트리니티, 장거리 항공사 변신 속도
- 에어로케이 5년만에 누적 탑승객 500만 돌파, 화물로 확장

[기타]

- 韓, 보잉-에어버스 파트너 참여... "민항기 독자 개발 목표"
- 하늘~바닷길 잇는다, 공항·항만 복합운송 '시애틀에어' 날개
- 대한항공 품은 영종 MRO 클러스터, 협력사 집적효과 기대
- 유류할증료 폭등 뒤 카드 결제 급감, 항공권 선결제 통했나

[글로벌]

- K-UAM, '美 조비' 패키지 활용하다 자생력 잃는다
- 中, 올해 상반기 국제항공화물 노선 92개 신규 개설
- DJI 드론, 에베레스트 빙하 지역 넘어 고고도 물자 운송 성공



Weekly Keyword

수에즈 통항 증가

2026년 들어 수에즈운하 통항량이 증가. Maersk가 8월부터 일부 노선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수에즈 운하 통항 정상화 신호가 확인되는 상황. 중장기적으로 컨테이너 운임 하락 압력 확대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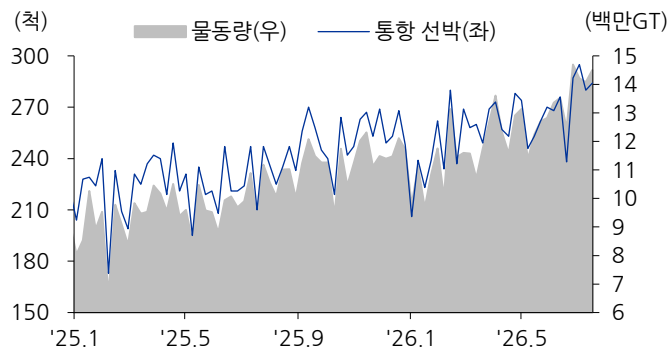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5)

[수에즈 통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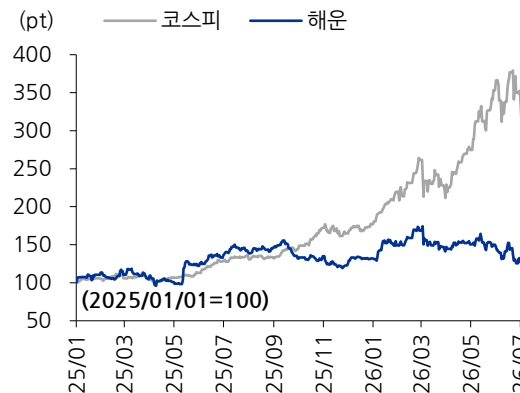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6년 1~5월 누적 수에즈운하 통과 선박은 5,696척(+13%yoy)으로 증가. 특히 탱커 통항량이 +24%yoy 증가한 가운데, Maersk가 8월부터 MECL 노선의 수에즈운하 항로 복귀를 발표하며 수에즈운하 통항 정상화 신호가 확인되는 상황.
- 반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지속 악화 중. 최근 5일간 일평균 통항량은 18척으로 전쟁 이전 대비 -85% 감소. 우회 수송과 선박 대기가 유효 선복을 제한하며 VLCC 운임 강세는 지속 중.
- 7/17 주간 기준 SCFI는 3,080pt(-3.3%wow)로 2주 연속 하락. 조기 성수기 효과가 약화된 가운데, 수에즈운하 복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유효 선복을 늘려 컨테이너 운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Key Chart: 주간 수에즈운하 통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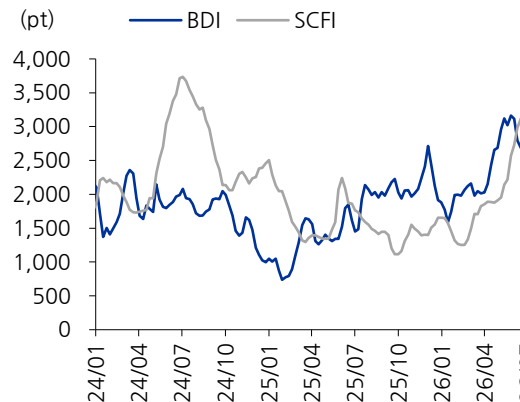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7/13~07/19)

[벌크선]

- 2026년 6월 벌크선 발주 1,642척으로 +21%yoy 증가
- 미-중 관계 개선, 1H26 글로벌 곡물운송 +13%yoy 증가

[탱커/가스선]

-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아조프해 마비, 러 수출 차질 우려
- SK해운, 탱커 건너내고 LNG 집중. '운송 인프라'로 탈바꿈
- 현대LNG해운 매각 절차, 이르면 3Q26 거래 종결 가능성

[컨테이너선]

- 2026년 1~5월 수에즈운하 통과 선박 +12.7%yoy 증가
- 컨테이너 운임 하락 국면 전환, 내려갈 일만 남았다
- 배 10척 중 6척은 지각, 해운사 운임 넘어 시간 경쟁으로
- HMM, 美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한국 운송 4년 연속 1위
- HMM, 연료비 절감 자율운항 '하이닉스 컨트롤' 도입 속도

[기타]

- 이란, 미 해상봉쇄에 맞불 "원유·가스 수출로 차단 각오해야"
-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일평균 20척 미만으로 감소
- 오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 지지하지 않아
- 싱가포르 벙커유 판매량 2개월 감소 후, 6월 소폭 증가
- 글로벌 40대 은행 해운부문 대출 3,000억달러 돌파
- 美 항소법원, FMC의 에버그린 체화료 부과 부당판결 지지
- KR(한국선급)-HD현대중공업, 국내 녹색 해운항로 구축 협업
- KR, 현대차기아 모베드(MobED) 선박 실증 세계 최초 수행
- KMI, HD현대삼호와 항만 분야 디지털 AI 협력 강화